Q 북한은 군 정치 간부를 어떻게 육성했는가?

A 북한 정치권력을 움켜잡은 김일성, 김책 등의 빨치산파는 당, 정, 군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오늘날의 김일성대학 전신인 평양학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5개월 여 뒤인 1946년 7월 초순'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를 창설했다. 초기 북한군 간부양성은 이 두 곳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평양학원은 1946년 2월 23일 정식으로 개교했다. 제1기생들은 이미 개교 전인 1월 초부터 입교하여 개교식에 대비한 훈련을 받고 있었고, 다음해 1947년 10월 하순에 졸업했다. 평양학원의 설립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북한을 이른바 남침용 기지로 구축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공산정권 수립에 필요한 정치간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의 설립목적은 김일성에 대한 절대지지와 그를 정점으로 한 지휘체계 확립이었다.

따라서 평양학원은 김일성 개인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맺어진 항일유격대가 골간이 됐기 때문에 김일성 직계의 빨치산 출신들이 장악했다. 교육 실무진인 교관은 소련군출신 한인들이 담당해 정치교육과 군사훈련을 병행했다. 이처럼 평양학원은 군대양성을 못하도록 규정한 미·소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의식해 처음에는 군이 아니라 학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비밀리에 군 간부를 양성했다.

그런데 당, 정, 군의 간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북한정권은 계파와 출신이 다양한 각 조직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할 통일적 정치사상 교육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해방직후 각지에서 입북한 군 출신들을 평양학원에 입교시켜 단기간의 정치사상 교육을 통한 공산주의 사상의 주입에 주력했다. 그리하여 그들을 보안간부와 당 간부 및 각급 임시인민위원회 간부, 각종 교육기관의 교관 등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북한군의 창설 대행자로 육성했다. 이 학원 출신자 대부분은 북한군의 핵심 간부가 됐다.

평양학원의 교육방침은 이론을 실천에 연계시키고, 배운 바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교과과정으로 국제사정과 한반도문제, 그리고 당, 군, 정 관련 실무업무와 체조 등을 가르쳤다. 또 소련군출신 한인과 소련인 교관들이 러시아어, 정치학, 공산당사와 신체단련, 사격술, 소련군 군사교리 등도 교육했지만, 군사교육보다 정치사상교육에 더 많

빨치산파는 해방 후 북한 당, 정, 군의 권력 핵심세력이 됐다. 사진은 소련군 시절의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 동료들.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일성, 세번째가 중국인 상관 저우빠오쭝(周保中)

은 비중을 두었다.

1949년 1월 평양학원은 북한군 제2군관학교로 개칭하여 평양의 만경대로 이전했다. 제1군관학교는 평양학원의 군사반과 보안간부훈련소를 통합해 군 초급간부(소대장) 양성기관으로 1946년 7월 초순에 설립된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의 후신이다. 평양학원은 제1군관학교로 개편된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에 이어 제2군관학교로 발족하면서 주로 정치군관 양성을 위한 정치부 훈련과 군사부 훈련을 병행했다. 정치부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의 정치사상과 민족해방사, 김일성의 민족해방투쟁사 등을 교육했으며, 군사부에서는 분대에서 대대에 이르는 전술훈련과 지휘관훈련 등을 실시했다.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의 설립 목적은 보병, 포병, 통신, 공병을 비롯한 여러 병종의 초급 지휘관들을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학교의 간부들은 1947년 5월 북한당국이 북한군의 모든 장병에게

해방 후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이 됨으로써 유럽 역사의 산물인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및 스탈린의 정치사상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각종 당, 정 간부 양성학교에서도 마르크스사상이 주입됐다. 사진은 노동절기념 시가행렬에 등장한 마르크스 등의 초상화들(1946년 5월 평양)

계급장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들을 조선인민군으로 편성해 본격적인 군 체제로 개편했을 때 조선인민군사령부의 각 기관장으로 보직됐다. 뒤이어 제1기 졸업생들도 소대장, 중대장 등 각급 교관에 임명됐다. 제1기생이 배출된 후 이 학교의 편제는 종합군관학교 규모로 확장돼 위생중대, 경리중대, 통신중대가 증편됐다.

북한군 창설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후 이 학교는 규모가 확장되자 1948년 12월 초순 해방 전 일본군 제99부대 자리였던 평양 사동으로 이전하면서 제1군관학교로 개칭됐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군관학교의 편제로 개편된 이 학교는 북한군에 필요한 각종 병과를 증설한 종합군관학교로서 보병과를 중심으로 포병, 공병, 중기병, 통신, 경리, 군의, 군악병과까지 양성했다. 훈련과정에서 소대, 중대, 대대와 연대훈련에 이르는 전술을 교육했다.

제1군관학교는 약 2년이라는 기간 내에 양적으로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충실하게 성장했다. 이 학교는 북한 정규군 건설에 속도를 더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졸업생들은 북한군 확장시 장교신분으로 주요 간부에 보직됐다. 그리고 남침시 북한군 장교의 대부분이 이 학교 졸업생들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정권의 군 간부와 정치 간부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육성됐으며, 북한이 군사적으로 정비되고 사상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결정적 뒷받침이 됐다.

생각해 봅시다!!

1. 북한이 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교육기관은?
2. 북한군의 핵심간부를 배출한 학교는?